

폭과깊이 다양화하는 바둑출판

에세이 소설 등 단순 기보집 넘어서는 '문학적 바둑책' 잇달아 선보여

바둑서적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제작년까지만 해도 포석·정석·맥·사활·끝내기 등 바둑의 技와 術과 實의 차원을 다룬 책들 일색이었지만, 작년 이후 道와 藝와 眞의 측면을 담아낸 '바둑에세이' '바둑소설' 류의 책들이 줄을 이어 출간되고 있는 것이다.

바둑에세이로는 "관전기에 소설을 도입했다"는 평을 듣는 朴治文씨의 「요순에서 이창호까지」(청년사)와 바둑기사들의 「외로움의 무늬」의 결을 거스르지 않고 생생히 그려내는 이광구씨의 「바둑이야기 1·2」(법조사)가 탁월한 '작품집'으로 손꼽힌다. 「名人」(가와바타 야스나리 저, 민병산 역, 숲), 「高手」(고정운 저, 그린비), 「입단연가」(홍성화 저, 논장), 「빈삼각씨와 공배양」(송영 외 저, 우리문학사), 「바둑」(이즈미 오사쿠 저, 원종성 역, 민맥), 「내기바둑꾼」(에자키 마사노리 저, 원종성 역, 민맥), 「소설 본인방」(에자키 마사노리 저, 이재호 역, 민맥), 「바둑으로 머리가 좋아진다」(가사이 고우지 저, 홍구희 역, 민맥), 「본인방 살인사건」(우치다 야수오 저, 이희성 역, 법조사) 등은 작년 이후 올해에 걸쳐 나온 '바둑소설'류이다. 바둑에 얽힌 설화·史話·평론 등을 정리한 「淸石棋談」(이승우 저, 우아당), 바둑으로써 '변증법적 유물론'을 강의하는 「철학으로 본 바둑에세이」(남상일 저, 다솔), 「玄玄棋經」의 바둑고전을 원문과 함께 소개하는 「圍棋古典叢書」(1~6) 등도 바둑출판의 폭과 깊이를 확장시킨 도서로 평가된다. 그밖에 玄玄社의 「오창원 회고록」 「후지사화」, 아진 출판사의 「섭외평, 바둑은 나의 길」, 서림문화사 '오늘의 바둑신서' 제1·2권인 「조훈현, 추억의 승부」 「집념의 승전보」 등은 천재적 기사들의 일대기 혹은 半生記의 성격이 짙은 책들.

바둑출판물의 '장르확산' 징후

저자들은 대개 바둑을 취미의 차원을 넘어 "인생의 축소판" 내지 "고고한 우주론"의 관점에서 맥을 짚어나간다. 한 판의 바둑은 통쾌함과 서글픔과 무상함이 수시로 교차하는 인생유전과 닮았기 때문이며, 기사들의 삶에 대한 태도가 수도승의 그것처럼 엄숙하고도 치열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삶에 비한다면 바둑은 한낱 유희일 수도 있음을 끊임없이 환기시켜 오히려 바둑의 세계관에 진정성을 불어넣는다. 예컨대 박치문씨는 그의 글에서 "바둑이 삶을 닮았다고 하지만 수없이 둘 수

있으니 한 번뿐인 삶의 준엄함에는 어렵도 없다. 그러나 온갖 욕망과 미로가 비장된 바둑 속에서 어쩌면 삶을 비취 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적는다.

이처럼 준엄하고도 아름다운 바둑글을 모은 「요순에서 이창호까지」는 그리하여 문단의 애기가들로부터 "관전기를 문학장르로 올린 저작"이라는 평을 듣는다. 바둑들이 놓이는 순서에 따른 평면적 서술로 일관하던 기존의 관전기의 틀을 넘어서, 한편의 바둑에서 하나의 이미지와 주제를 꼬집어낸 뒤 해석을 가해 한편의 드라마를 만들어 낸 최초의 관전기자라는 평이다. "바둑의 승부는 정신의 싸움이다. 정신은 고요한데, 이 고요의 바다 위에 승부의 폭풍이 분다. 익혀온 기술을 다하여 이 폭풍과 싸울 때 그 정신은 어떤 상태가 최선이며, 어떤 색깔이 가장 아름다운가" 등의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던진 버거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고투한 흔적이 역력한 이 책은 그리하여 "비평집"이라고 회자된다.

"영원한 활화산 조지훈" "동양의 3대 천재 조훈현" "뒤편바둑의 승부사 서봉수" "전통무예의 계승자 유창혁" 등 '바둑기사론'에서 특히 문제를 말하는 이광구씨의 「바둑이야기」는 미니시리즈 드라마에 비견된다. 때때로 무협지를 방불하는 극적 요소를 도입하지만, 머리말에서 밝히듯 "외로움의 무늬는 조금씩 다들 지어낸 사람은 외롭다"는 주제의식으로 녹여 비장미 넘치는 극을 연출해낸다. 「바둑이야기」는 이야기의 긴장을 비유를 통해 획득한다. 패자를 위해서는 "비 오는 날의 우울"을 얘기하고, 마지막 승부처에서는 제갈량의 출사표를 끌어오고, 윙개 두다가 밀리는 바둑은 "주식의 폭락"에 빗대는 것이다.

이들 에세이가 棋力과 筆力이 범상치 않은 저자들에 의해 씌어진 '바둑문학'의 한 새로운 양식임에 비해, 「위기고전총서」는 말 그대로 바둑고전 모음집. 「현현기경」(1349), 「官子譜」(1689), 「發陽論·玄覽」(1713), 「碁經衆妙」(1812), 「死活妙機」(1910) 등 중국·일본 등지에서 저술된 바둑고전이 망라돼 있다. 그리고 「청석기담」은 '바둑史'이자 '바둑설화집'이다. 「논어」 등 동양의 고전들에서 바둑에 관한 언술을 수집·정리한 「바둑의 역사」를 비롯, 「한국바둑史」를 염두에 둔 "우리나라의 바둑사화" 등 7부로 구성된 이 책은 앞뒤에 각각 화보와 「古今 바둑 걸작 棋譜選」을 수록했다.

「제국주의론」 「임노동과 자본」 등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남상일씨가 지은 「철학으로 본 바둑에세이」는, 위에 열거된 바둑책들이 유심론이나 관념론에 침잠된 세계를 보여줌에 비해, '변증법적 유물론'의 바둑론을 개진해 화제가 되고 있다. "바둑이라는 하나의 현실을 철학적 기준을 도입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방하는 이 책은 "바둑을 원리적으로 이해하자(원리론)" "변화는 모순에서부터(모순론)" "살아 숨쉬는 법칙(법칙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식론)"으로 구성된다. "바둑은 영토분쟁이라는 전쟁"이라 정의하며, 그것은 "세계분할을 위한 전쟁, 식민지와 금융자본의 세력권을 분할·재분할하기 위한" 제1차 세계대전과 다르지 않다는 식으로 설명한다.

소설, 비평, 전기 등 다양해져

"국내 필자에 의해 쓰여진 최초의 본격 바둑장편"인 「高手」, 김성동씨를 비롯해 국내 문단의 바둑고수들의 바둑을 주제로 한 단편과 콩트를 모은 "국내 최초의 바둑소설집"인 「빈삼각씨와 공배양」, "재외교포의 손으로 쓰여진 최초의 바둑소설"인 「입단연가」 등은 작년에 '바둑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선포한 소설집들이다.

두 젊은이의 삶의 역정을 바둑과 교직시킨 「바둑수호지」, 일본에서 스테디셀러로 정착됐다는 「내기바둑꾼」, "면도날 사카다의 생애를 바둑을 통해 격조높은 언어로 그려내 바둑소설의 명작으로 평가된다"는 「소설 본인방」,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가와바타 야스나리가지은 「名人」 등은 일본의 바둑소설 번역판들.

이 소설들은 "바둑이란 가치가 없다고 하면 절대 무가치이고, 있다고 하면 절대 가치이다."라는 말에서 '바둑' 대신 '인생'을 대입시킨다. 특히 「名人」은 가장 가와바타적 작품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바둑사의 대승부를 소재로, 절정에서 펼쳐지는 정신의 드라마를 그려낸" 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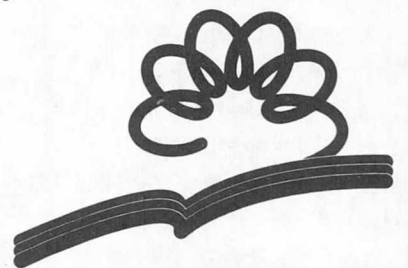
"바둑인구 급증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

그밖에 "바둑의 고전주의를 완성하고 낭만주의를 연 시대적 가교의 인물"이자 "바둑의 옛것은 모두 그에게 흘러 들어갔고 새것은 모두 그로부터 나왔다"(이광구)는 오창원의 「회고록」(현현사), 한국바둑의 수준을 혼자 힘으로 한 세대를 앞당겼다는 조훈현씨의 半生과 기보를 모은 「추억의 승부」 「집념의 승전보」, 기풍에 따라 '화려' '강완' '신통' '중후' '투혼' '호연' 등 미학적 수식어를 이름 앞에 붙인 「일본대표기사명국선」(현현각) 등은 생존 프로기사의 생애와 그것의 동의어인 바둑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글들이다.

이와같이 작년 이후 잇따라 문학적 바둑책이 출간되는 배경에 대해 한국일보 바둑관전기자인 권해만씨는 "웅창기배 등 국제적 기전에서 한국바둑이 승승장구하여 매스컴의 주목을 받게 된 이후 바둑인구가 급증한 데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 진단한다. 이어서 "아직까지는 문학적 바둑책에 관한 한 태도와 즐락은 없다"며 "바둑의 문외한일지라도 흥미있게 읽을 수 있으며 인생에 대해 반추케 할 만한 책들"이라고 전한다.

— 김중식 기자

'93 책의 해



| 책 | 을 | 떠 | 자 | 미 | 레 | 를 | 열 | 자 |